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09호 1판 (음력 7월 14일)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개각 3~7개 부처 전망
호남출신 중용 가능성

이정현 '탕평인사' 건의 이어 김무성 "호남출신 대거 임명을"

박승춘 보훈처장 교체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중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남 출신 인사가 중용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5일 "오늘이나 내일 당장 개각을 단행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만간 추진하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정기국회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내각 진용을 완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러시아 방문 등 순방외교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각 규모는 3~7개 부처가 대상이 되는 중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 대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장관이 바뀌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환경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5·18 기념곡 제창과 관련 논란을 일으켜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차관급) 역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각 인선 방향과 관련, 임기 후반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료 출신 위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일부 부처만 정치인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탕평인사'를 요청함에 따라 호남출신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생투어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지난 13일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 자리에 올랐으니 호남에 신경 쓰지 않겠나"라며 "다음 개각 때 호남 출신 장관이 대거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 같은 기류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호남 출신 장관 임명은 (내가) 줄곧 주장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이나 역시 미래부 2차관을 역임했던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광주·전남 출신인 윤 원장은 탕평인사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도 내부 관료 출신인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이 경합을 벌이는 가운에 역시 호남 출신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정섭 차관 등 내부인사 승진설이 유력한 가운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역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만약 이 실장이 환경부 장관으로 이동할 경우 후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오균 국무1차장이나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현재 기획재정부 1·2차관 등이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숲속의 철인들 제71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열린 제2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5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명품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너릿재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을 출발해 동구 지원2동 너릿재 옛길을 도는 코스로 진행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복의 함성으로 폭염 뚫고 폭풍 질주

제2회 8·15 광복절 기념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 대회

전국서 500여명 참가 대표적 여름 스포츠 이벤트 자리매김

제 71주년 광복절인 15일, 전국에서 몰려온 건각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너릿재 명품 숲길을 달리며 진한 숲내음을 만끽했다. 혹서기 대회가 드문데다,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 10선'에 선정됐던 지역 유명 숲길을 따라 달리는 '이색' 대회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마니아층이 생겨나며 대표적 여름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에 이어 '8·15 광복절 기념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도 선조들의 항일 민족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뿌리와 숨결을 돌아보는 대회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참가자들도 많았다.

광주일보사가 마라톤세상, 아시아문화와 공동으로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 제2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 대회'가 15일 오전 화순 너릿재 옛길 주차장에서 출발, 편백향 가득한 숲길을 따라 너릿재 정상을 거쳐 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주차장을 돌아오는 코스에서 열렸다.

지난해 첫 대회 이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명품 숲길' 코스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마라톤 동호인을 비롯한 500여 명이 청량감 가득한 우거진 숲길을 따라 달렸다. 구충곤 화순군수와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도 참가자들과 호흡을 같이했다.

대회는 개회 선언에 이어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의 대회사로 막이 올라 8·15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만세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선거연령 18세·지구당 부활 추진

중앙선관위, 월말께 국회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정당활동과 관련 논란이 됐던 지구당 설치와 정당후원회 부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사전 공개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시키도록 했다. 다만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원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Rio2016

▶관련기사 3·18면

'무안 총잡이' 김종현 2연속 銀 명중
광주시청 김국영·김덕현 결선 실패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의 리우올림픽에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년 간 흘린 땀방울로 메달을 일궈내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땀방울만큼 굵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는 선수들이 생겨나고 있다.

무안 출신인 김종현(31·창원시청)은 지난 12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사격 센터에서 열린 남자 50m 소총복사 결선에서 208.2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도 50m 소총 3자세 은메달을 땄다. 그는 광주 두암초교와 각화중, 광주체고를 거쳐 동국대를 졸업한 뒤 창원시청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5·광주시청)은 올림픽 목표로 삼았던 한국 신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그는 지난 14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m 예선 8조 6번 레인에서 출발해 10초 37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지난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진선국 이후 20년 만에 올림픽 남자 100m에 나선 한국 선수였지만 자신의 한국기록(10초16)에 못 미친 기록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더했다. 한국 육상 도약의 1인자 김덕현(31·광주시청)도 멀리뛰기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는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멀리뛰기·세단뛰기 종목에서 동시에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지만 멀리뛰기 결선에 나서지 못했다. 앞서, 최미선(20·광주여대), 기보배(28·광주시청)는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한국 여자배구는 16일 밤 10시 네덜란드와 40년 만의 올림픽 메달 획득을 놓고 격돌한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힘내라 코리아! Rio2016

16일(화) 〈한국시간〉
05:23 사이클 트랙 남자 박상훈 출전
05:30 베드민턴 여자 단식 16강
22:00 여자배구 8강 한국 vs 네덜란드
17일(수)
19:30 골프 여자부 1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전인지 양희영 출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 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